

nobliian

Contemporary Lifestyle Destination
THE SHILLA



No150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JUNG HEUNSUK

COOPERATION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1577-7595)
LG ARTS CENTER(2005-0114)
MOONJI PUBLISHING(338-7224)
Book+Stage(3668-0121)

culture Zoom in

A Meaning of Gifts

Three artists offer gifts for readers. It's the sensitivity forgotten from the past and the present.

김홍주의 아날로그적 감수성

원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김홍주가 2년 만에 나들이를 했다. 비록 새로운 작품을 들고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 미술관 플라토에서 2월 3일까지 열리는 <<불>가능한 풍경>이라는 전시에 여러 작가와 참여했다. 1994년에 내보인 '무제'라는 작품이니 그의 초창기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의 초기 작업은 콘셉추얼 아트 같은 개념적 작품이 주를 이뤘다. 김홍주는 "그게 재미없어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작품을 하겠다고 시작했다"며 웃었다. 그래서 초기 작품은 회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요즘 작품은 그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왜 그렇게 방향을 틀었는지 재차 묻자 간단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림이라는 게 그냥 그리는 거 아닌가." 그가 다시 웃었다. 에디터도 그냥 덩달아 웃었다. 맞는 말이다. 그림은 그냥 그리는 행위니까.

그러면서 김홍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최근 현대 미술이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문화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할 일은 디지털과는 다르다.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아날로그적 작업만 하고 있다. 이미지도 모두 정보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업을 통해 사물과 직접 마주치거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은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니라 몸을 직접 움직여 캔버스 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가 몸을 움직인 시간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겨 있는 거다. 이런 시간은 그림을 읽는 게 아니라 그저 감각하도록 만든다. 독자에게 김홍주가 건네는 선물의 지점이다. 이 감각은 현대에서 점차 사라지는 행위다. 이미지는 기호에 불과해졌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의 아이콘이 그렇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문자도 점차 기호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저 이미지를 읽는 데 그친다. 여기서부터 김홍주의 역할이 생긴다. "흠을 만지도록 하는 거다. 흠을 만지는 느낌은 이미지로 전할 수가 없다. 실제로 만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언어로도 전하기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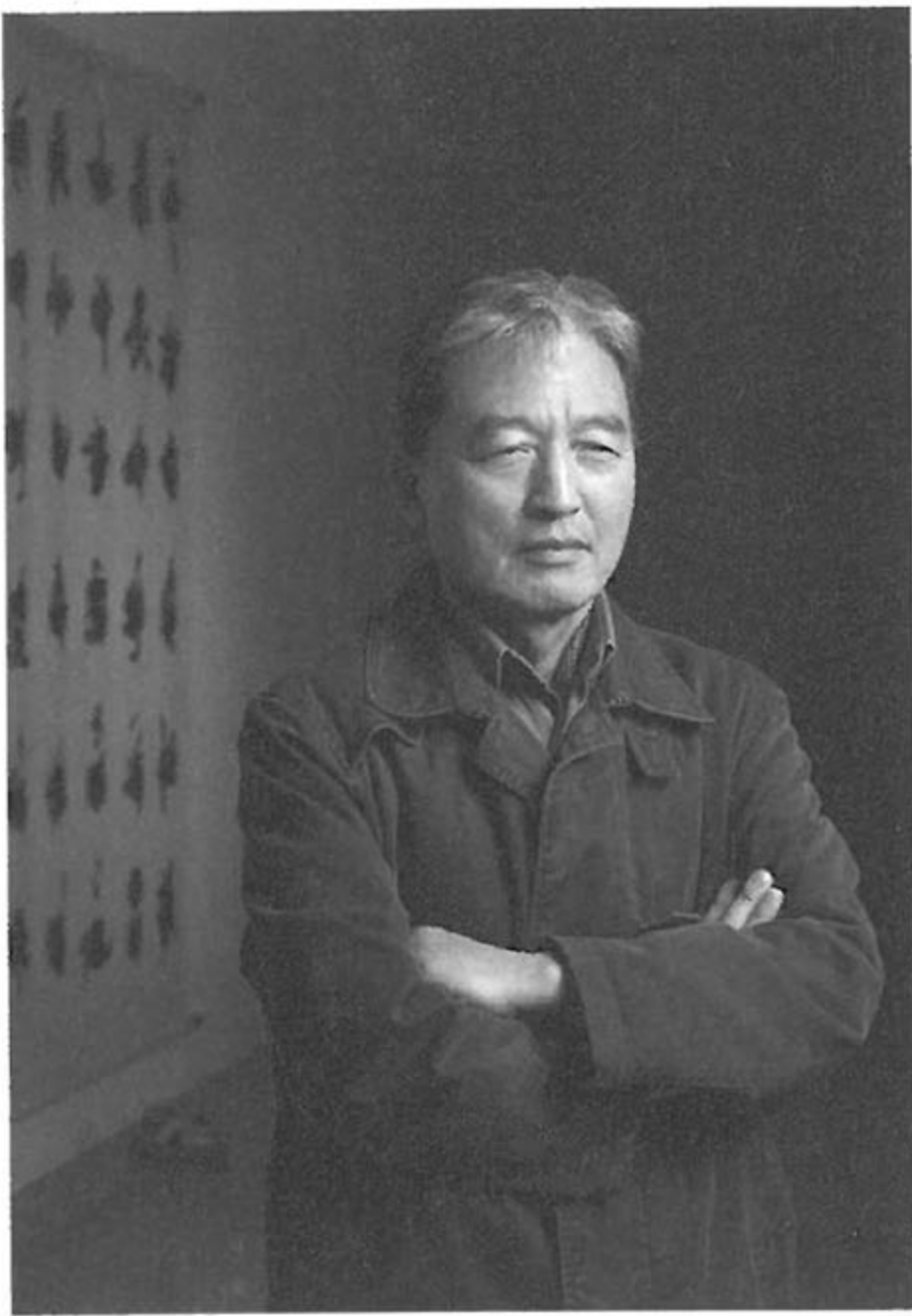
다. 본다는 행위도 소통처럼 기호나 이미지가 아닌 감각할 수 있는 것 자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날로그적인 것,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몫이다."

플라토의 <<불>가능한 풍경> 전시장 안은 젊은 작가부터 중견 작가의 설치 미술이 주를 이뤘다. 김홍주가 말했듯 소위 콘셉추얼하며 관객을 사고하게 만드는 풍경이다. 이곳에 걸린 그의 작품은 족자에 신문지 쪼가리를 각각 붙이고 그 위에 글씨를 그린 형태다. 글씨가 마치 대변의 형태를 띠어 바닥에는 똥 덩어리 같은 것을 쌓아놓았다. 이 작품이 풍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했다. "물론 풍경은 아니다. 다만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덕분이다. 발갈이한 논밭 풍경을 그렸는데 마치 글씨를 쓴 것처럼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글씨를 그리면 안 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작품이다. 그런 작품의 연상 관계를 큐레이터가 알고 있어 이번에 전시하게 됐다." 실제로 그는 90년대에 기호가 섞인 논밭 풍경을 많이 그렸다. 자신도 소싯적에는 기호로 읽히는 작품을 만들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대중에게 친숙한 꽃그림을 거쳐 그저 그린다는 행위에 더 천착한 작품에 몰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마디를 더 던졌다. "요즘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날로그 문화 속에서 살았고 지금은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다. 노인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PROFILE

김홍주는 충북 회인에서 출생해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전 세계 유명 미술관 전시에 참가하고 개인전을 여러 번 개최했다. 초기작은 콘셉추얼 아트에 깊이 발을 담고 있지만, 이후 세밀하고 정교한 꽃을 그리는 작업을 해왔다. 현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A Meaning of Gifts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JUNG HEUNSUK

COOPERATION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1577-7595)
MOONJI PUBLISHING(338-7224)
LG ARTS CENTER(2005-0114)

Three artists offer gifts for readers.
It's the sensitivity forgotten from
the past and
the present.

Kim Hong Joo's analog sensitivity

Kim Hong Joo, who is now described as an elder veteran artist now, is making a comeback in two years as a part of the group exhibition, "(Im)Possible Landscape" at the Plateau gallery of the Samsung Museum. In this group exhibition which runs through February 3, Kim brings his older artwork, "Untitled" from the year 1994 from his early days when he was more focused on conceptual art. Kim smiled and said, "I started to do something that I could do." And these days, he is focused on painting, although he kept distance from painting in earlier days. Asked why, he offers a simple answer. "Painting is, after all, just painting." And he smiled again. So did I.

And he continued. "These days, contemporary art uses digital media much, and this reflects the change in culture. But our generation should do something different from digital art. I wanted to remain analog. So I stick to analog way of painting. Images are information, but I try to remain analog as I physically run into objects as I do the painting." To him, painting means a lot. A painting does not happen in your brain. You have to move to paint. The time he spent while painting is on his canvas. You can feel the time on the canvas. And the time is a moment that the artist offers as a present to his spectators. Such a feeling is fading away in the modern times. Images are more like signals like the icons on smartphones and computer screens. Text messages between people are like signals. Children of these days just read images. And this is why the artist should keep working. "I want children to physically touch the soil. You cannot deliver that feeling with images. You have to feel it for yourself. You need to stick to analog to understand things you have to see, touch and experience. That's the role that my generation has to play." Plateau's "(Im)Possible Landscape" exhibition is filled with installation art from young and senior artists. As Kim said, the landscape is conceptual and it makes people to think. His artwork is a scroll with pieces of newspaper and a painting of letters. And these letters are in the shape of excrement, and there are excrement-like things piled up on the floor. What does it have anything to do with landscape? He answered, "Of course, this is not landscape. But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motivation behind the painting. I drew a landscape of a rice paddy, but it looked like a group of letters. So I started to think that maybe I could work with the letters. And the curator who knew this background included this work in the exhibition." Indeed, he painted a lot of rice paddies and fields in the 1990s. This means that he used to work on paintings that were about images and signals. Now, however, he is more focused on the actual activity of painting. "I am not such a big fan of reading these days. I lived in the analog culture, and I cannot catch up the speed. I think reading remains to be the only thing for the old men."